

미술과 시간 보내기 1

개념미술 감상하기

ㄹㄹ 우리의 시간이, 개인으로서나 종(種)으로서나,
우주적 관점 안에서 본다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ㄹㄹ

가디언 지는 2014년 7월 찰나의 삶을 산 개념미술의 거장 온 카와라의 죽음을 알리며 이렇게 적었다. 마르셀 뒤샹이 1917년 미국 독립 예술가 협회에서 주최한 《앵데팡당 전》에 처음 번기를 출품한 뒤 현재까지 100년이 지났다. 60~70년대 개념미술의 전성기, 그 1세대 예술가인 온 카와라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2~3세대를 거쳐 네오 컨셉츄얼리즘을 배출하며 아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개념미술도 길고 긴 예술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언젠간 찰나에 불과할 것이다.

개념미술은 이제 더 이상 특별히 새로운 것 없는 주류의 미술이 되었다. 어느 갤러리나 박물관을 가도 이것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개념 미술을 감상하기 전에 앞서 몇 가지 감상 포인트들을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개념 미술은 원래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양분화와 엘리트주의를 표방한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좀 더 근원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 이전의 미술, 모더니즘 미술은 형태나 재료에 관한 것이었고 작품을 만드는 개인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개념과 의미에 관한 것으로 바뀌게 되며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재조합, 차용하는 방식으로 상업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존재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시작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 메이드 즉 가져다 놓은 사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후 예술은 바뀌게 된다.

개념미술은 작품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작품을 통해 일어난 질문에 대한 답 즉 개념이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작품이 가져다주는 느낌과 생각, 이미지를 중요시하며 사물, 텍스트, 이미지 등을 예민하게 선택한다. 이런 변화들로 오브제들은 의외의 장소에 설치되며 시각적인 이미지와 언어는 결합되었으며 때로는 언어 자체가 예술이 되었다.

텍스트는 재료가 된다

그 이전에 고전회화에서는 텍스트를 이미지와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원칙처럼 관행화되어왔다. 문자와 그림이 분리되어 있다가 문자가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로 표현의 대상으로 미술에 등장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20세기 초 브라크에서 시작되어 뒤상, 마그리트로 이어져 개념미술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개념미술 이전의 여러 사조와 작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텍스트는 작품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해독되어야 하는 존재이면서 화면의 시각적 구성 때문이거나 형식적 실험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했다. 재현의 대상으로 예술의 심미성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호로서 존재했으나 작품의 형식 안에서 회화적으로 재현된 이미지의 형태는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헨리 플린트는 ‘개념미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1961년 쓴 글에서 “개념예술은 재료가 언어인 미술”이라고 언급했다. 드완 갤러리에서 1967년 6월에 열린 전시, <볼 수 있는 언어 그리고/또 읽을 수 있는 것 들 Language to be Looked at and /or Things to be Read>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개념미술 전시가 처음 열렸다. 온 카와라도 이 전시에 참여하였다. 그는 1964년경 오노 요코와 함께 글자와 문자를 사용한 개념미술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

1964년 일본 출신의 오노 요코는 <그레이프 프루트 Grapefruit> 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시들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종이에 텍스트로만 구성된 이 작품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시각예술이 될 수 없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하는 작품임에도 종이 위에 텍스트는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미술이 되었다.

온 카와라의 <일일 회화 Today series> 연작은 1966년 1월 4일 뉴욕에서 시작되어 그가 죽기 전까지 그리도록 계획되었는데 약 3천 개의 일일 회화가 제작되었다. 그림을 제작한 당일의 날짜를 단색 바탕의 캔버스에 리퀴텍스 물감으로 채색한 것으로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24시간 내에 완성되어야 했다. 또한 캔버스가 완성되면 그 크기에 맞는 종이 상자에 당일의 일간신문과 함께 스크랩하여 보관됐다.

1

오노 요코
Grapefruit, First
Edition, 1964

2

일일회화를 제작 중인
온 카와라의 뉴욕 스
튜디오 On Kawara's
studio, Greene
Street, New York,
1979

3

온 카와라 -일일회화
시리즈



2



3

수수께끼 같은 알레고리를 풀어보자

은유와 상징이 모더니즘 미술에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이라면 개념미술은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드러낸다. 알레고리는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작가의 제시

된 사물 혹은 이미지는 알레고리를 통해 다른 어떤 것이 되며 작가는 이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 알레고리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언어적인 것과 구체적인 이미지는 혼합되며 사물이나 대상은 섞이어 재배열되고 개념은 이를 통해 전달된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조합을 푸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된다. 다양한 알레고리의 방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콜라주는 이러한 알레고리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기법을 사용해 전체에서 분리되어 기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변환된다.

존 발데사리는 언어의 구조와 기호학적 해석방식을 통해 사진과 사진을 결합하고 사진과 텍스트를 결합 시킨다. 그는 관련성이 없는 이미지들을 잘라 재조합하거나 기존의 이미지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사물들에 색을 입히거나 컬러 점을 찍어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작품 <손상된 알레고리 1978>에서 그는 여러 색채 필터를 장착한 카메라가 10분 간격으로 찍은 텔레비전 광고 사진과 신문, 잡지에 서 오려낸 사진들 그리고 여러 작가들의 글, 자신의 메모들을 결합시켜 작품을 완성했다. 말과 이미지를 교란시켜 배치하여 충돌과 부조화로 통해 이미지를 읽으려는 알레고리를 오히려 손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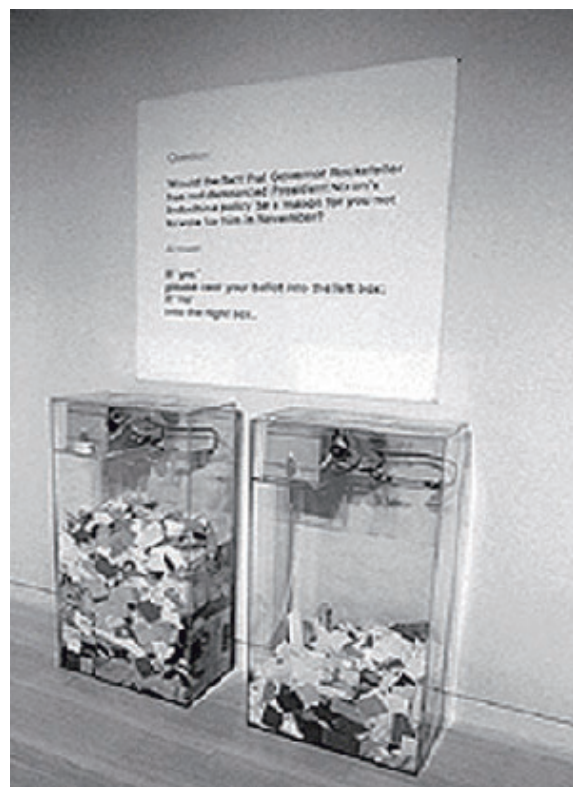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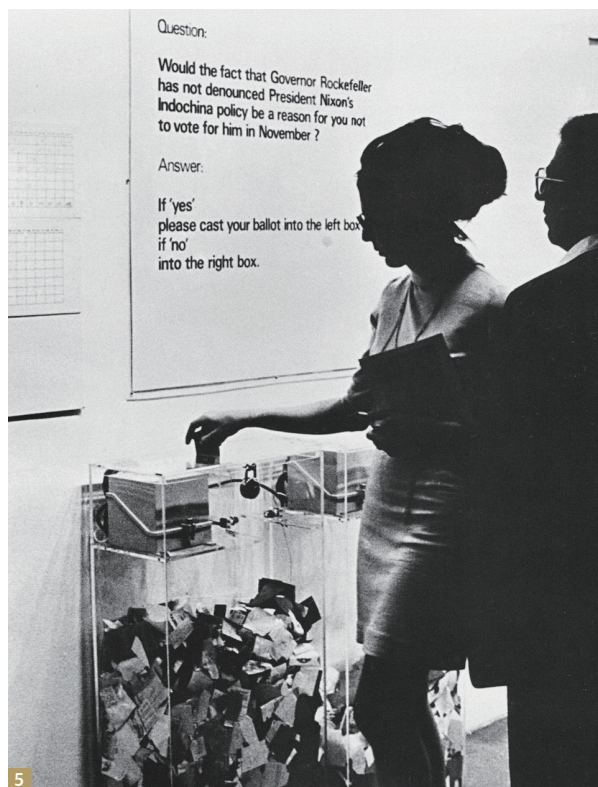
4
존 발데사리
<손상된 알레고리
Blasted allegories>, 1978.

나의 행위는 작품이 된다

개념미술에선 수동적인 감상의 대상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감상을 요구받게 된다. 관람자의 정신적인 참여나 행위를 통해 작품은 완성되고 관람자와 작품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는가는 개념 미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한스 하케는 1970년 뉴욕현대 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 <모마 여론조사 MOMA Poll>에서 두 달 전에 발생한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당시의 뉴욕지사 넬슨 록펠러가 보인 태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넬슨 록펠러가 닉슨 대통령의 인도차이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신이 오는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그에게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까?”라는 질문에 관람객들은 68.7%가 “예”에, 31.3%가 “아니오”에 투표했다. 당시 록펠러는 뉴욕 주지사이면서 뉴욕 현대미술관의 이사회 회원이었다. 질문, 투표함, 투표용지, 관객의 투표는 작품이 되었다.

5
한스 하케 <모마 여론
조사 MOMA Poll>,
1970



자 이제 개념미술 작품들을 감상해보자. 이미지와 텍스트를 읽고 작품의 수수께끼 같은 비밀들을 풀어 보자.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작품의 일부분이 되어보는 것도 좋겠다. 미술관을 나선 후 맘도는 생각이 있거나 궁금증이 생긴다면 혹은 아! 하고 무릎을 탁 치며 빙긋 웃을 수 있다면 개념미술을 잘 감상한 셈일 것이다.

안규철 -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Ahn Kyuchul - Invisible land of love 2015. 09. 15 ~ 2016. 02. 14



이불에 이어 현대차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로 현재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안규철 -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가 전시되고 있다. 전시는 '야호 마리 금붕어', '1000명의 책', '식물의 시간 II', '64개의 방', '기억의 벽', '피아니스트와 조율사', '사물의 뒷 모습', '침묵의 방' 이렇게 8점의 신작으로 구성된다. 그 중 온 카와라의 오마주 같은 작업인 '1000명의 책'은 전시기간 동안 1천 명의 관객이 국내외 문학 작품을 연이어 필사하는 필경 작업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성(城)', 이상의 '날개', 등 국내 외 문학작품을 필사하며 필사본은 한정 부수로 인쇄돼 전시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우편 발송될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신청은 <http://ill.ahnkyuchul.com/wordpress/> 에서 할 수 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현대 미술관 홈페이지(www.mm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시는 2016년 2월 14일까지(문의 02-3701-9500).